

투데이

여수세계박람회 D-11

흰고래 '벨루가' 여수 상륙

러시아서 1100km 여정...3남매 귀여움 독차지

사람을 잘 따라 귀여움을 독차지 하고 있는 희귀 흰고래(벨루가·사진)가 국내 처음으로 여수에 상륙했다.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는 지난 30일 "벨루가 3마리(벨리, 지나, 타나)가 지난달 2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출발해 1100km에 달하는 해로와 육로를 거쳐 박람회 아쿠아리움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벨루가 이동 작업에는 수의사가

24시간 배치돼 돌고래의 건강, 호흡수, 수온 등을 실시간 확인했고 특수 제작된 수조와 2700t급 선박, 무진동 차량 등이 동원됐다. 또 여수 현지에서는 경찰 호위까지 받기도 했다. 이날 여수에 도착한 벨루가의 끈끈한 남매애도 벌써부터 화제다. 조직위 관계자는 "과목하지만 든든한 오빠 '벨리'(3살)와 언니 '지나'(2

살) 그리고 개구쟁이 막내 '타나'(1살)는 이동 중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을 자주 연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벨루가는 1000t 규모의 수조에 담겨 여수에서의 생활을 시작했고, 별다른 어려움 없이 적응을 마쳤다. 한편 벨루가는 성체가 4m 이상 자라 돌고래가 아닌 고래로 분류된다. 수백의 아름다운 몸체를 지니고 있으며 친화적인 성격과 엔젤링(원형 물방울 고리) 묘기 등으로 이미



해외에서 '바다의 귀족'이라 불리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희귀종 보존과 연구 목적으로 반입됐고, 아쿠아리움 내에 벨루가 연구소를 설립해 고래의 생태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광주~엑스포전시장 매일 버스 무료 운행

2012여수엑스포 전시장과 광주 간을 매일 무료로 운행하는 광주관광 투어버스가 운영된다. 광주시는 2012 여수엑스포 전시장에 찾는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투어버스 사전 예약접수를 1일부터 받는다. 엑스포가 시작되는 오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93일간 운행하는 투어버스는 매일 오전 9시, 오후 1시 하루 두 차례 총 6대의 대형 버스가 투입되며, 사전 예약만 탑승가능하다. 이용 요금은 무료다.

여수엑스포를 관람하고 광주로 돌아오는 경우에는 여수엑스포 정문 옆 임시 시외버스승차장에서 탑승하며, 광주출발 오전 1회차 버스 이용자는 오후 5시 차량에, 오후 2회차 이용자는 오후 10시에 각각 출발하는 투어버스를 이용해야 한다. 이용을 희망하는 관광객은 출발일(관람일) 5일 전까지 광주관광정보센터(062-233-3399)나 광주문화관광포털(http://u-tour.gwangju.go.kr) 온라인예약 창구에서 직접 사전예약접수를 하면 된다. /홍행기자 redplane@



수직 70m 분수쇼 '빅오' 준공

여수 밤하늘에 환상적인 분수를 쏘아올리고,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게 될 여수세계박람회 해상문화공간 빅오(Big-O)가 지난 30일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열린 준공식에서는 345개의 분수 물줄기가 음악에 맞춰 70m까지 솟아올랐고, 360도 회전 노즐을 이용한 우아한 곡선도 연출했다. (사진) 이 해상분수에는 세계적인 기술력이 총 동원됐다. 라스베이거스의 벨라지오호텔 분수쇼, 미라지호텔 화산 분수쇼, 두바이 버즈칼라와 분수쇼를 만든 'WET'사에서 기획, 제작했다. 분수 길이는 총 3열 120m이며, 수중조명만 1233개에 달한다. 물줄기는 15m에서 최대 70m까지 올라가며, 분수 위에 홀로그램 입체 영상을 선사하는 '리빙 스크린'(Living Screen) 기술도 세계 최초로 적용됐다. 빅오 해상분수쇼는 박람회 기간, 낮에는 30분 간격으로 밤에는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빅오쇼를 펼치게 된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베일 벗은 '현대차그룹관'

친환경 자원순환구조 한눈에

여수세계박람회 기업관인 현대차그룹관이 지난 30일 공개됐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친환경 자원순환구조로 만들어 인류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현대차그룹의 비전을 표현했다. 이 관은 면적 1398㎡, 높이 25m로 조성된 현대차그룹관 여수엑스포에 참가하는 독립기업관 중 가장 크다. 건물 정면은 현대차그룹이 철강,

자동차, 건설, 부품, 물류·서비스 등 5개 부문을 잇는 소통과 교류, 무한 가치를 창조하는 자원순환형 그룹임을 표현했다. 또 후면은 현대차그룹의 영문 이니셜인 'H'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다. 4개의 전시공간에서는 각각 ▲아름다운 만남 ▲변화와 성장 ▲새로운 진화 ▲함께, 더 큰 미래라는 주제를 통해 스토리가 펼쳐진다. /최한배기자 choi@



30일 공개된 여수세계박람회 기업관 중 가장 큰 현대차그룹관 건물은 현대의 영문 이니셜인 'H'를 모티브로 건설됐다. /최한배기자 choi@ 또 현대차 에쿠스와 기아차 K5 하이브리드를 비롯해 150여개의 부품이 벽면에 전시되고, 벽면과 부품들이 조명과 함께 실루엣 형태로 은은하게 보여진다.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im@

전남도, 농민단체 고발 취하키로

지사실 점거농성 재발 방지 노력 합의

전남도가 농민단체의 도지사실 점거농성에 대한 고발을 6주만에 취하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지난 30일 배웅태 행정부지사 주재로 농민단체 주요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전남연맹회장 등 관련자 11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 취하하는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관찰무안경찰서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면담에서 농민회와 전남도는 비경영안정대책비 삭감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고 급기야 도지사실 점거농성까지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지사실 점거 같은 일이 관례화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고발초치했던 것"이라며 "양측이 전남농정 발전에 함께 힘쓰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농민회 관계자도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돼 다행"이라며 "전남 농업과 농정 발전을 위해 보다 많은 대화를 갖자는 의견에도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전남지역 농민단체들은 전남도의 비경영안정대책비 직불금 50% 감축에 항의하며 지난 3월 21일 전남도청 9층 도지사 집무실에 진입해 5시간 가량 점거농성을 벌인 뒤 자진해산했다. 이에 전남도는 사전 발생 다음날 농성에 참여한 30여명 가운데 박희장 등 11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전남도 '전북 양식 섬' 조성 시동

300억 투입 200ha 규모...연구용역 착수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전북 양식 섬' 조성 사업이 본격화된다. 도는 지난 30일 "최근 전북 수율이 증가하는데, 중국을 중심으로 전북산업을 급속한 성장세를 보여, 대규모 전북 양식 섬을 조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북 양식 섬 조성 규모는 200ha(60만평)에 이르며, 3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대규모 가두리 양식여장을 비롯해 종묘 생산에서부터 가공·유통 시설을 복합적으로 갖추게 된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23일 사업 타당성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연구용역 기관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전남대

가 맡았다. 용역을 통해 양식 섬 조성 장소와 적정 개소 수, 시설 및 사업시행 방식 등을 결정하게 되고 오는 2013년부터 양식 섬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북 양식 섬이 조성될 경우 1000여의 전복이 추가로 생산돼 500억원의 소득을 더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도 인민군 해양수산국장은 "양식 섬을 미래 식량자원 문제 해결과 수산업의 기업·규모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전남도내 전복 생산량은 6785t으로 전국 생산량(6941t)의 98%에 이른다. /오영록기자 kroh@kwangju.co.kr

유영숙 환경부장관 여수 방문

유영숙(사진) 환경부장관이 1일 광주·전남을 방문해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여수세계박람회청 등을 둘러본다. 유 장관은 이날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무공해 전기자동차 충전과 시연



을 살펴보고, 지역민들과 함께 전기차 시승식도 갖는다. 또 여수를 방문해 환경과 바다를 주제로 한 이번 박람회의 준비 상황을 둘러본다. /오영록기자 kroh@kwangju.co.kr

『제48회 전라남도미술대전』개최 요강

2012년도 『제48회 전라남도미술대전』(전국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 주 최: 전라남도 / ○ 주 관: 한국예총전라남도연합회

- 1. 출품부문: 9개부문
○ 한국화, 서양화, 서예(전각,서각포함), 서간자(문인화), 조각, 사진, 공예, 건축, 시각디자인
2. 출품자격: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3. 출품규격 및 접수기간

Table with columns: 부문, 작품규격, 접수기간/접수처. Lists submission details for various art categories like '서예 전각', '서예', '서각', '서간자', '한국화 서양화'.

Table with columns: 부문, 작품규격, 접수기간/접수처. Lists submission details for '사진' and '건축'.

- 4. 출품료: 5만원(1인)
5. 출품수: 1인(팀)당 2점 이내
6. 원서교부: 예총전라남도연합회, 시군에 비치, 전남도청 문화예술회관, 시군 문화(예술)관광과
7. 유의사항 (기본사항)
○ 출품자 1인 1회 1입상을 원칙으로 하며 입상작은 1점만 인정합니다. 2점 이상이 입상작인 대상작품으로 선정될 시에는 상위상작 1작품에 대해서만 입상작으로 인정합니다.

- 8. 심사발표: 2012. 6. 14(목) (예정)
9. 시 상 식: 2012. 7. 13(금) 오후3시/목포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예정)
10. 작품전시
○ 출품자 1인 1회 1입상을 원칙으로 하며 입상작은 1점만 인정합니다. 2점 이상이 입상작인 대상작품으로 선정될 시에는 상위상작 1작품에 대해서만 입상작으로 인정합니다.

- 11. 작품반출
○ 낙선작품: 심사결과 발표 후 3일 이내
○ 전시작품: 전시종료 후 3일 이내
○ 상시기간 내에 작품을 반출하지 않을시 작품의 훼손·망실에 대해 주최 및 주관측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12.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단체: 한국예총전라남도연합회 ☎062)351-7506, FAX(062)351-7507
2012. 5. 1.
전라남도미술대전회장

Advertisement for '독일보청기' (German Hearing Aid) featuring a family photo and text: "행복한 소리" "이제 여러분 곁에 독일보청기가 있습니다." "다채널 방식 / 100% 디지털 고막형"